

노동

Arbeit

1. 어원 및 개념 정의

노동 Arbeit은 게르만어 arbaipis에서 파생되었으며 힘들, 어려움, 고통의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목적 지향적인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 노동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자연에 작용함으로써 자연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노동은 의식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학에서의 노동의 개념은 생산적 요소와 관련되며 직업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학에서 노동은 신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독일어 Arbeit는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의 생산물, 논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 노동의 본질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연계에서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획득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연에 작용하는 목적, 자연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 등 일련의 인간 활동이 노동이다. 또한 과학, 예술, 문화를 창출하는 정신적 활동도 노동이다. 동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에 대해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노동수단이 사적인 소유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인간적 활동이었던 노동이 비인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계급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지배계급이 소유하고 노동은 피지배계급의 영역에 속하며 노동의 결과는 대부분 지배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결과를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의 성과는 지배계급의 소유물이 되어 노동자를 지배한다. 이를 통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한다.

노동의 소외와 노동자의 소외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마르크스였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보았으며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세계와 스스로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자기생산의 과정을 마르크스는 헤겔의 역사철학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이 이론은 변증법적 과정으로서의 역사적 발전이념을 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한다. 노동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의 투쟁에 상응하는 생산과정에 필요한 도구를 발전시킨다. 생산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산하는 대상세계 즉, 새로운 욕구를 발전시킨다.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 낸 세계의 대상이 된다. 인간은 생산자이며 동시에 생산물이 된다. 인간의 자기생산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 세계의 창조를 의미한다.

노동은 마르크스의 철학적 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실현한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대상 세계를 만들어 내며 이를 통해 생산과정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창조하며 창조적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한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본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노동은 창조적인 노동이다. 노동의 이상적인 상태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이며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인을 통해 대변된다. 이러한 노동은 사회적 생산과정 안에서 실현된다. 이상적 노동과 대립되는 소외된 노동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외된 노동이 자기행위, 자유로운 행위를 수단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육체적인 실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 마르크스의 노동이론은 이상적 노동을 전제로 한다.

3. 모티프 유형

1) 임금/착취 노동

공장에서의 생산 작업의 실행은 노동자가 담당한다. 생산력이 진보하여 생산과정이 대규모화되면 노동을 관리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본가는 이 기능을 노동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이로써 관리, 감독노동자가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형성된다. 기술자 및 관리자가 노동자 계급의 상층에서 나오며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대결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임금노동에 해당된다.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임금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으로부터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하며 이로 인해 노사간의 갈등이 야기된다.

하우프트만의 『직조공』은 슐레지엔 지방 직조공들의 비참상을 그리고 있다. 공장장의 노동력 착취에 직조공들의 불만은 커져간다. 직조공들은 합심하여 공장장의 집으로 쳐들어가 폭동을 일으키지만 자신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불안해한다.

톨러의 『기계파괴자들』 또한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하거나, 기계로 대치하려는 자본가들에 반발하여 광기에 사로잡혀 폭동을 일으켜 스스로 파멸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을 배신하는 노동 관리자들의 대결을 그린다.

2) 강제노동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시키는 노동을 말한다. 강압을 받는 상태에서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수행하는 노동을 말하며 인간의 노동력만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노예 노동과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강제 노동은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특히 나치 독일이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들 체제에 부적합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감금시켜 무기한으로 집단수용소나 노동 수용소, 공장 등에서 가혹한 조건 아래 강제로 노동하게 했다.

첼란의 시 『죽음의 푸가』는 나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참혹함과 상흔으로 얼룩진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노동은 공중에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작업으로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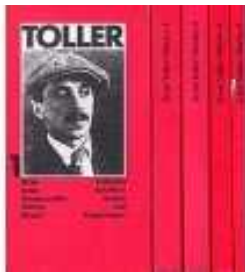
4. 서사구조 (노동투쟁)

	내용
원인	무지
	가난
	권력(정치적, 사회적)
	이윤 추구
	두려움
	기계도입
	사회적 소외
과정	노동자 지도자간의 갈등
	권력 투쟁(사회적, 정치적)
	배반(배신), 음모
	폭력
	충동
결과	죽음
	살인
	사회적 배제(쫓겨남)
	체념
	차별
	화해(자본가와 노동자들의)
혁명, 봉기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기계파괴자들 Die Maschinenstürmer』

작가	에른스트 톨러 Ernst Toller (1893-1939)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22
등장인물	<p>지미: 노팅햄 출신의 노동자. 고향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계획한다.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 연대를 결성해 노동자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노동자 존의 간계로 죽음을 맞는다.</p> <p>존: 노동자들의 파괴적인 본능을 선동하여 자신의 신분상승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노동자. 지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p> <p>헨리: 지미의 형. 자본가 울리의 작업반장. 노동자들의 착취에 앞장선다.</p> <p>울리: 자본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노동자들을 쫓아내고자 한다.</p>

5.1. 내용 요약



노동자 지미는 고향 노팅햄으로 돌아온다. 노팅햄에서는 자본가 울리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이윤을 확대하고자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려한다. 실업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한다. 노동자들은 과거 수공업시대에서의 노동이 보다 자유로운 노동이었으며 기계화된 시대의 자신들의 노동은 기계의 부품에 불과하다며 과거를 그리워한다.

울리의 작업반장으로 노동착취에 앞장서는 지미의 형인 헨리는 지미의 귀향이 반갑지 않다. 헨리와 같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노동자 존은 노동자들에게 기계는 악마이며 파괴되어야 할 괴물이라며 노동자들을 선동한다. 존의 지휘 아래 노동자들은 점차 폭력화된다.

지미는 기계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운명이라고 주장하며 기계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를 버리고 기계가 자유로운 인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지미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 연대를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자 연대를 위한 지미의 호소는 지미 역시 형인 헨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배신할 것이라는 존의 선동으로 외면당한다. 노동자들은 존의 선동에 따라 지미를 때려죽이고 폭력적인 충동에 휩싸여 기계를 파괴한다. 경찰이 폭력에 가담한 모든 노동자들을 체포한다. 늙은 노동자 레아퍼는 노동자들의 무지를 한탄하며 지미의 시신을 거둔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임금/착취 노동

- 서사구조: 자본가의 노동착취와 실업의 위협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파업을 계획한다. 노동자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분열되고 폭력화된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노동자들의 폭력적인 충동에 희생된다.

원인	가난과 실업: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실업의 위기에 처한다.
과정	배신과 선동: 신분상승을 꿈꾸는 노동자는 노동자들을 배신한다. 실업의 원인이 기계라고 선동하자 노동자들은 폭력화된다.
결과	살인: 노동자들은 폭력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기계를 파괴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살해한다.

6. 작품 목록

하이네 Heinrich Heine: 『슐레지엔의 직조공들 Die schlesischen Weber』 (1844)

하우프트만 G. Hauptmann: 『직조공 Die Weber』 (1893)

카이저 G. Kaiser: 『가스 I, II Gas I. II』 (1918)

톨러 E. Toller: 『기계파괴자들 Die Maschinenstürmer』 (1922)

브레히트 Bertolt Brecht: 『조처 Die Maßnahme』 (1930), 『어머니 Die Mutter』 (1932)

뮐러 H. Müller: 『헐값노동자 Der Lohndrücker』 (1956/57)

볼프 Christa Wolf: 『분단된 하늘 Der geteilte Himmel』 (1963)

첼란 Paul Celan: 『죽음의 푸가 Todesfuge』 (1983)

7. 연계 모티프

권력, 간계, 기계, 세계종말, 살인, 예언, 자본가, 농부, 실업, 노동자, 가족, 자유, 소외, 착취, 혁명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노동자 + 착취 + 투쟁 + 배신 + 자살
스토리	<p>노동자들이 착취에 항거하여 노조를 결성해 투쟁한다. 노조위원장은 자본가에 의해 매수당한다. 노조 위원장의 배신으로 노동 운동은 분열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노조위원장은 자살한다.</p>